

#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만나 꿈만 같아요”

### 경찰 도움으로 ‘유전자 분석’ 44년 만에 모자 극적 상봉

44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와 아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상봉했다.

23일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영광경찰서에서 어머니 이모(71·영광)씨와 아들 김모(49·전주)씨가 44년 만에 만났다.

이들 모자는 김씨가 8살이던 1978년 10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헤어졌다.

당시 어머니 이씨는 왕십리 고모 집에 아들을 맡겼는데, 아들 김씨가 어머니를 찾겠다고 나갔다가 실종됐다.

이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하고 아들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8년 전 서울에서 영광으로 내려온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아들을 찾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실종아동 전문센터에 유전자 대조를 의뢰했다.

지난 11일 실종아동 전문센터에서 등록된 김씨의 유전자와 이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의 유전자는 2004년 전주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 당시 무연고자로 분류돼 채취돼 있었다.



유전자 대조를 통해 44년 만에 재회한 어머니와 아들이 지난 20일 영광경찰서에서 포옹하고 있다. (영광경찰서 제공)

유전자 일치 통보를 받은 경찰은 이들 모자의 상봉을 주선했다.

이씨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마음속에 품고 매일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경찰관님 덕분에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꿈만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 SGI서울보증, 광주호남본부 신설



SGI서울보증 임직원이 광주호남본부 새출발을 기념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제공)

국내 최대 종합보증회사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호남본부를 신설한다.

SGI서울보증은 “지역 맞춤형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호남본부를 신설하고 24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1969년 설립 이래 서민과 기업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보증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김종완 광주호남본부장은 “호남의 경제·문화 중심지인 광주에 SGI서울보증 지역본부를 신설해서 매우 뜻깊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들의 꿈을 보증하고 희망을 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무지구에 자리잡은 SGI서울보증 광주호남본부는 광주·전주·군산·익산·순천·목포·여수 등 8개 영업지점을 관할한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 사회정착 온택트 기업간담회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임종배)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기업간담회를 '온택트(Onact)' 방식으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북 친환경 자동차 산업 기업인 대우전자부품주 등 21개 기업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6개 협력 기관 등 광주, 전남·북 기업과 기관이 참석했다. (광주지방보훈청 제공)

### 인사

- ◆법무부
  - ◇부이사관 승진
    - ▲전주교도소장 박삼재
  - ◇서기관 승진
    -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이영성
  - ◇서기관 전보
    -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서호성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종근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윤대하 ▲순천교도소장 백금태 ▲군산교도소장 유기용 ▲장흥교도소장 장승구 ▲정읍교도소장 박기주 ▲광주교도소 부소장 이현주

## ‘순천 강씨 삼형제’ 막내 강길만 전 의원 별세

해방 직후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벌이고 고국 발전에 기여한 ‘순천 강씨 삼형제’의 막내 강길만(姜吉滿) 전 의원이 지난 2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1928년 승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항일 민족투쟁 지도자이자 해방 후 오사카 민단 단장을 지내며 제주도를 밀감 산지로 키우는데 공헌한 큰형 강계중(姜桂重·1914~1983)씨, 재일동포 권익옹호 활동을 하다 순천 최초의 직업학교인 순천여상(현 순천청암고)과 순천 청암대를 설립한 둘째 형 강길태(姜吉泰·1921~2013)씨의 동생이다. ‘순천 강씨 삼형제’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5형제 중



막내였다.

두 형을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가 긴키(近畿)대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1956년부터 오사카순천상사에서 근무하며 제일 대한정년 중앙총본부 훈련국장을 거쳐서 1962년부터 큰형이 만든 대한반공순국단 일본 전국 단장으로 활동했다. 1973년에는 순천·승주·구례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제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꽃 피면 달 생각하고(재)	15 헬로킴지 동물교실3 45 주리갯살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UHD 스테이지(재) 55 당신을 응원합니다(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영화가 좋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미니디Q(재)	00 KBS 뉴스타임 10 포뮬(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 50 노래가 좋아(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라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MBC 플러스특선 맘마미안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룬일이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시사타지!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사랑의 파배기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백종원 클래스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꽃 피면 달 생각하고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30 피의 게임	00 그 해 우리는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신년기획 역사저널 그날(재)	10 스튜디오 K(재) 35 세상의 모든 다큐	10 스포츠 매거진 50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떠나요! 차박 캠핑	4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우당탕탕 은하안전(재)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대! 호기심딱지
07:00 코요태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워터쇼 해결단
07:15 출동! 슈퍼핑크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9:00 레이디버그
07:30 마법버스 타요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0 한국의 둘레길
07:45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8:00 딩동댕 유치원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엄마 까투리	15:25 클래스 e	-맛나서 좋은 세상 -겉고 먹고 사랑하라, 규슈 올레
08:45 방구대장 뽀뽀이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09:00 숲속 배달부 빙빙	16:00 마사와 곰	<강원 산골 표류기 1부 그산에 왕국이 있다>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15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추피와 친구들	16:30 딩동댕 유치원(재)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4일(음 12월 22일 丁丑)

☎ 010-9790-8237

<p>36년생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48년생 중심을 벗어나면 곁들 수밖에 없다. 60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바의 역할이 크다. 72년생 생각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니 우려할 필요가 없다. 84년생 착실한 실행이 앞장 결실을 맺게 하는 배경이 되어 줄 것이니라. 96년생 철저히 선별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3, 75</p>	<p>42년생 약간만 뒤를 돌아본다면 이해하게 되리라. 54년생 노력한다면 해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66년생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차 호전 되리라. 78년생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90년생 한 곳만을 보지 말고 다각적으로 살펴보자. 02년생 별 문제없이 순탄할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7, 76</p>
<p>37년생 전기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49년생 나설 때가 되었으니 기민하게 행하라. 61년생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습하기 힘들어진다. 73년생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85년생 가끔씩 빨리 조처하는 것이 좋다. 97년생 배편다면 반드시 북받으리라. 행운의 숫자 : 33, 98</p>	<p>43년생 보류해 왔던 일을 다시 행해도 될 때이니라. 55년생 다자 관계까지 아우르는 것이 연쇄적인 효과를 낳는다. 67년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79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다. 91년생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 03년생 자신감 있게 행동함이 유리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83</p>
<p>38년생 성과를 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리라. 50년생 민중재를 생각하면서 넓고 크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62년생 일상에 충실하다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74년생 중용의 입장에서 타협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이다. 86년생 예상 했던 바와 정반대로 될 수도 있다. 98년생 산변에 커다란 변화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1, 82</p>	<p>44년생 같이 있어야 공조가 이루어지느니라. 56년생 필수적인 것을 생략하려 한다면 무리가 따른다. 68년생 방치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80년생 자선이 될만한 것이 많이 놓치지 마라. 92년생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정진하는 것이 이익이니라. 04년생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36, 97</p>
<p>39년생 과감하게 시도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51년생 대어는 다 놓치고 피라미에 집착하고 있는 성국이다. 63년생 용도에 부합해야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75년생 곁경의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다. 87년생 모르고 지냈으면 더 나았을 법한 비밀을 우연히 듣게 된다. 99년생 날날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87</p>	<p>33년생 자유로운 상태로 나누는 것이 무난하다. 45년생 건실적인 요인이 보이니 그것에 중점을 맞춰라. 57년생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해 뒤야만 후사를 도모 할 수 있다. 69년생 지혜를 짜내어 요령껏 풀어 나가야만 한다. 81년생 무리한 진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93년생 지난 일은 차치하는 것이 속 편하다. 행운의 숫자 : 13, 50</p>
<p>40년생 상부상조해 나간다면 당해내지 못할 바가 없다. 52년생 지극히 조그마한 차이므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64년생 겨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76년생 가지 않는 길을 살펴본다면 얻는 바가 있으리라. 88년생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면 오히려 흉이 된다. 00년생 예의 주시해야 할 이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0, 78</p>	<p>34년생 중저대한 일이나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 46년생 물심양면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없겠다. 58년생 인식을 잘 해야 쉽게 적응할 수 있느니라. 70년생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82년생 불가피하다면 속명으로 알고 수용하라. 94년생 성부의 향방을 좌우하는 분기점에 서리라. 행운의 숫자 : 00, 66</p>
<p>41년생 형세를 좌우할만한 열세를 거머쥐게 되리라. 53년생 어떠한 경우라도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 65년생 경쟁력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77년생 열심히 해 놓으면 머지않아 요긴하게 쓰이리라. 89년생 힘든 만큼 수확의 결실도 알차겠다. 01년생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12, 55</p>	<p>35년생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47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하면 무난할 것이다. 59년생 대안이 없다면 현상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임을 알아야 한다. 71년생 부담 없이 처리해도 무방하다. 83년생 오직 통일된 원리로 일관성 있게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95년생 관심있게 살펴본다면 파악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42, 54</p>